

# 나경원 출마 초읽기...국힘 전대 '金·羅·安' 3파전 가나

〈기현〉 〈경원〉 〈철수〉

### 나경원 측 "연휴 직후 출마 선언"...압도적 후보 없어 결선 투표 변수로 金, 대세론 굳히기...羅·安, 중립 표심 노린 '느슨한 연대' 가능성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할 때 당권 레이스 구도는 사실상 '김기현·나경원·안철수' (가나다순) 3파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후보등록(2월 2~3일) 전 출마선언과 출정식을 하기에 촉박하다.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더 늦출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출마선언을 하는 게 (일정상)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들 세 주자는 모두 '친윤' 당 대표를 표방하고 있다.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실제 이번 전당대회 구도는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친윤 실세인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주류인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김기현 의원의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김 의원 쪽에 쏠렸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나타난 구도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 해임한 이후 친윤계와 나 전 의원 간 갈등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 것도 '친윤 vs 비윤' 프레임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 및 친윤계와 갈등이 심화한 이후 친윤계 표심이 김 의원 쪽으로 이동하

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레이스 초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나 전 의원이 이후 김 의원에게 잇따라 지지율 선두 자리를 내준 것이다.

그러나 주류 친윤 그룹이 힘 자랑하듯 하는 '세몰이'에 반감을 가진 당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를 선언할 경우 여론 지형 흐름이 변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측면에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새로 도입된 결선투표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끼리만 재투표를 해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제도이다.

당 안팎에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선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결국 결선투표에서 친윤과 비윤 표심이 각각 결합하면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

주류인 친윤계는 친윤 진영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을 동원해 투표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편론 이준석 전 대표의 불명에 퇴장부터 최근 '나경원 불출마 압박'에 이르기까지 주류인 친윤계를 향해 축적돼온 당내 불만도 비윤 표심을 키울 수 있다.

각 주자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득표 전략을 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선두권에 올라선 기세를 몰아 '대세론' 굳히기를 노리고 있다. 유일한 '친



김기현

윤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결선투표 없이 과반 투표로 당선되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 측은 결선투표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는 분위기이다. 나 전 의원을 포함해 많은 후보가 뛰어들어 표심 분산으로 결선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 비윤뿐 아니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립 지



나경원

대 표심까지 흡수하겠다는 포석이 읽힌다.

특히 안 의원과 나 전 의원은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서 결선투표를 염두에 두고 수도권 대표론으로 뭉치는 '느슨한 연대'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80만명을 넘어서는 당심의 실제 향방도 관심거리다.



안철수

20만~30만 당원이 참여하던 과거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줄세우기'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어 실제 표심은 현재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중수청 설치 '용두사미'...사개특위 이달말 시한 압박

### '검수완박' 입법 후속책 무산 위기...여야 갈등에 5개월 간 논의 전무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대책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장기간 표류 끝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수청 설치는 물론 검수완박법(검찰정법·형사소송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당의 여타 법안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닷을 올렸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가 논의는 전무했다.

지난해 8월 30일이 돼서야 상경례 성격의 첫 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특위가 5개월 가까이 '개점 휴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특위 구성 당시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이 애초부터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을 우리가 맡긴 했지만 안건 처리는 물론 회의 소집 자체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며 "여당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특위 활동을 그야말로 울스톱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는 추가 시도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심각한 대립을 풀기 위해 별도 논의 채널로 사개특위를 제안했다.

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안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수청을 별도로 설립해 맡기자는 중재안도 내놓은 바 있다.

특위의 '빈손 종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최근 특위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1월 임시회 분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 다시금 '검찰 정상화' 후속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특위 논의가 진척되었느냐. 국민의힘이 연장안 상정에 합의해줄 리도 만무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 尹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 0.6%p 떨어진 38.7% ... "UAE 적 이란" 발언·나경원과 갈등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여 38%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16~20일(1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38.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58.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 41.1%를 기록한 후 41.2%(12월 4주 차)→40.0%(12월 5주 차)→40.9%(1월 1주 차) 등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가 전주 조사에서 39.3%로 내렸고, 이번 주까지 38.7%로 집계되며 2주 연속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6.4%p ↑)과 광주·전라(6.1%p ↑)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4.4%p ↑), 보수층(3.9%p ↑), 50대(3.1%p ↑), 부산·울산·경남(2.2%p ↑), 국민의힘 지지층(2.1%p ↑)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다보스 포럼 순방에 대한 평가"라며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성과에도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이 한-이란 외교 갈등, 여야 정치 갈등으로 비화하며 순방 성과가 희석·잠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측은 또 "주초 나경원 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갈등 여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